

“트럼프 철강 25% 관세부과, 최악은 피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 내부 대책회의서... 철강 수출 등 영향·대책 논의

정부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25% 알 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철강수출 등에 대한 영향 및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아침 백운규 장관 주재로 통상차관보, 산업혁신성장실장,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안을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 부과에 이번주 중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와 조치 권고안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계 권고안에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어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을 부과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이 담겼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어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김현중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 개리 롱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장, 윌버 로스 미 상

무부 장관 등을 만나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했다.

산업부는 3가지 안 중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3가지 안 중에서는 최악의 경우는 피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관세 부과에서 예외국가와 유예 품목이 있는지에 따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뉴스



이스타항공, 군산~제주 노선 특가 이벤트 실시

이스타항공이 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2일까지 열흘간 군산~제주 노선에 대한 특가 이벤트 'JEJU 좋은 군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4일부터 24일까지의 탑승 항공권에 대해 편도총액유임 최저 1만8300원부터 구입이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과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약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의 군산~제주 노선은 오는 24일까지 주 7회 매일 운항한다.

군산에서 제주로 가는 ZE301편은 오후 1시30분 군산공항을 출발해 오후 2시25분에 도착하고, 제주에서 군산으로 가는 ZE302편은 오전 11시55분 제주공항을 출발해 오후 12시50분 군산에 도착한다.

하계 비행 스케줄로 전환하는 오는 25일부터는 오전 항공편에 대해 증편을 실시해 주 14회 운항을 시작한다. 매일 2회 왕복운항으로 오전 출발, 늦은 오후 도착편에 대한 지역민들의 수요가 충족될 예정이다. /뉴스

검은사막 모바일, 앱스토어 인기 1위 출시 5시간 만에 100만 다운로드 돌파

필러비스의 신작 '검은사막 모바일'이 국내 모바일 MMORPG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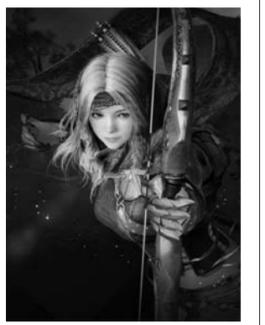
2일 필러비스에 따르면, 검은사막 모바일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기차트 1위를 기록 중이다.

출시 5시간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서비스 첫 날부터 기대를 입증한 이 게임은 현재 애플 마켓 인기 1위와 더불어 애플 앱스토어 최고매출 1위, 구글 플레이스토어 2위를 달성했다.

이로써 검은사막 모바일은 국내 MMORPG 시장 선두를 다투던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넷마블계 인조의 '리니지2 레볼루션'의 아성을 위협하게 됐다.

검은사막 모바일의 인기는 예고됐던 부분이다. 앞서 프리미엄 테스터들에게 합격점을 받았던 수준 높은 그래픽과 정교한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완성도 높은 콘텐츠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공식 카페 누적 회원수도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출시 첫 날 결과로 이어졌다.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 와이즈앱'은 국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 사용자 2만3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달 28일 출시한 검은사막 모바일의 첫 날 이용자 수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뉴스



검은사막 모바일의 안드로이드 출시 첫날 성적은 '리니지M'(126만명)에 못미쳤지만, 넥슨의 '듀랑고'(110만명)와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102만명)을 뛰어넘었다.

검은사막 모바일은 원작 PC 온라인 '검은사막'의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모바일 MMORPG다. 역대 국내 게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인 사전예약수 500만 명 이상을 모객했다. 원작은 북미, 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150여개국, 12종의 언어로 서비스되며 850만 명이 넘는 누적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모바일 게임 시장은 검은사막 IP와 '리니지 IP'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뉴스

농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 운영

농협은 오는 9월 말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가 9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전국 축산업 종사자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25일부터 강제 폐쇄나 사용 중지 처분을 받게 돼 생존권을 잃게 된다며 농성을 벌여왔다. 가축분뇨법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냈다.

농협 특별상황실에서는 축산농가와 조화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적법화 관련 통계도 제공한다.

오는 6일에는 일선 축협의 무허가 축사 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뉴스

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대 및 특허공제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일부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학생, 영세발명가 등 경제·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상담과 출원서류 작성 지원, 심판·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허청은 기존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으로 추가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또 특허

공제사업의 운영 자금 및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사업의 관리·감독 및 세부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근거를 명문화했다.

특허공제는 중소기업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기업이 지식재산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내의 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20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특허공제사업 관련규정 정비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특허공제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뉴스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최저임금 인상 부담해야”

김상조 공정위원장, 가맹시장 상생 필요성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 지원을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각종 비용 분담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도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서 참석한 주요 가맹본부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맹점주에 대한 여러 경제 주체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맹점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가맹본부의 지원을 통해 가맹점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난관을 극복하면 '소득증대'→내수진작→기업의 매출증대'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흐름으로 이어져 혜택은 고스란히 가맹본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

거래본부의 주요 제도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며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점주는 10년의 사업기간을 보장 받고 점포환경개선 비용도 20%에서 40%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가맹점 영업지역을 변경하거나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신고,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것을 막는 개정된 가맹거래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되지만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가맹본부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점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